



포스트 이견희 시대 |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 시대 열린다

AI·바이오·5G...미래투자로 '글로벌 삼성' 가속

2014년부터 사실상 총수 역할 하던 인수 등 대형투자 유치 불확실성 속 연이은 호실적 상속세만 10조 원대 달할 듯

이견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삼성'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4년 부친 이견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삼성전자를 이끌어왔고,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면서 사실상 총수 자리에 올랐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자신만의 비전을 담은 경영전략을 더 과감하게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과 사법 리스크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뒤 이미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 왔다. 항상 '위기'를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다. 2016년에는 국내 인수합병(M&A) 최대 금액인 9조 원을 들여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친 고 이견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을 인수했다. 2018년에는 '180조 원 투자 4만 명 채용'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에도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네

덜란드,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글로벌 행보에 힘을 실었다. 성과도 있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연이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5%, 58.1% 증가한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12조 3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톱5'에 처음 이름을 올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인팜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지속 성장 발판 마련 등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견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 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을 보유했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를 모두 물려받으려면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세금을 내야 한다.

사법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26일 재판을 재개한다. 시장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납품업체서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하나로마트에 7억8000만원 과징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성과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수년간 거듭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물류센터에 이용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22억 12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인건비 부담 여부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납품업체와 계약을 한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 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영욱 기자

스파오, MZ세대 겨냥 신규 라인 '하이퍼' 론칭



이랜드월드 SPA(제조직매입) 브랜드 스파오가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하이퍼'(사진)를 론칭했다. '유행의 선두, 갖고 싶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의 '하이퍼(hyper)'와 '뜰뜨다'라는 뜻의 '하이퍼(hyper)'의 이중 의미를 담았다. 매주 월요일 신상품을 발매하며 주력 상품은 그래픽과 로고를 활용한 스위트 셔츠와 후드 등 스트리트 분위기의 캐주얼 아이템이다.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MZ세대 고객과 소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카드 '와이 로카? UCC 영상 콘테스트'



롯데카드가 12월 31일까지 '와이 로카?(Why LOCA?) UCC 영상 콘테스트'(사진)를 진행한다.

롯데카드의 새 브랜드 '로카(LOCA)'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표현한 UCC 영상이면 장르와 분량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자유롭게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삽입해 업로드한 후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콘테스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업로드 UCC는 내부심사(40%)와 좋아요·조회수(60%)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해 총 6명(팀)의 파이널리스트를 선발한다. 파이널리스트 UCC는 롯데카드 공식 블로그에 소개되며 내년 1월 우수작 고객 투표를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파크로쉬 "미니 타고 오대천로 단풍 즐기자"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는 미니(MINI) 공식딜러 코오롱모터스와 함께 가을 단풍 감상 드라이브 체험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미니를 타고 가리왕산, 두타산과 수향계곡, 속암계곡, 백석폭포 등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오대천로를 달릴 수 있다. 파크로쉬는 드라이브 무료체험 차량을 10월 페퍼 화이트 컬러의 클럽맨 SD로 교체해 운영을 재개했다. 드라이브 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6시 하루 2회 운영한다. 고객센터로 전화예약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시-한국노바티스, '헬스엑스 챌린지' 공모 개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 발굴·지원 7년 미만 기업 대상...내달 22일까지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는 서울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헬스엑스 챌린지 서울(사진) 공모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프로젝트의 모집 분야는 ▲환자·보호자의 희귀질환 인지도를 높여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이후의 행동 변화(검사율 증가, 질환 인지도 변화 등)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 ▲신생아 대상 척수성 근위축증의 조기 진단을 돕기 위한 디지털 기술로, 두 주제 중 하나를 택해 지원하면 된다.

전 세계 7년 미만의 창업 기업(2013년 10월 22일 이후 설립) 및 예비창업자(의사



면허 소지자 제외)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헬스엑스 챌린지 서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HealthXChallengeSeoul)를 통해 11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 2팀에게는 연구지원금 각 4000만 원과 함께 2년간의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문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시제품 연구 및 개발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영욱 기자 sadzoo@donga.com



"초록색 '메로골드 킹자몽' 맛보세요" 롯데마트가 초록 자몽이라 불리는 미국산 '메로골드 킹자몽'을 개당 2480원에 판매한다. 가을-겨울 시즌에 맛볼 수 있으며 자몽 마니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일반 자몽 대비 과즙이 풍부하고 자몽 특유의 쓴맛이 적다. 정영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마트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임플란트 시술시 고려사항은?... "숙련된 전문의 통해 치료해야"

임플란트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치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택하게 되는 치료 중 하나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틀니와 브릿지 등의 치료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임플란트 시술은 물론 2030 젊은층의 임플란트 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외상, 사고에 의해 치아 파절이 일어났거나 회생 불가능한 충치, 심각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젊은층은 단 음식을 즐기고 음주량도 많기 때문에 구강질환을 앓다가 임

플란트 시술로 이어진다. 하지만 무조건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임플란트 부작용 또는 재수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숙련된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치료 치료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실력

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상황에 적절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고 있어야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숙련된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첨단 3D CT 장비를 이용해 환자 개인의 구강을 미리 파악하고,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 등을 고려한 뒤 시술을 진행해야만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중하지 못한 임플란트 시술은 기대수명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 과정 없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조건을 고려해 임플란트 치료를 선정해야만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의왕치과 서울우리치과 우승욱 원장